

A-236

2000.5.24

5.5. 1967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월 21, 15-17

또나 또는 자기 심기는 사랑이 죽었으며 그의 조원들 둘이
죽은일

• 원수 갚는일 - Hamlet

• 또는 그가 원하던 조원 이루어주는것, 음식, 돈.

→ 그것에 대해서 예수와 그 제자들이 경우

• 15월은 13월의 제후이다. 새벽까지 저들의 티끌한 아랫
조반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특히
묻는다. 네가 나를 저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가 저들보다 사랑하는것은 네가 저들로 사랑하느니라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저들이 나를 사랑하느니라
보다 더 사랑하느냐? 세번

이것이 복음서의 장면이다. 그런데 바로 十字架 직
접한 장면과 잔 최후 만찬에서는 네이즘이
나를 한 사람이 있느니라. 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세번 부인 하라. 그런데 여기서는 나를 사랑
하느냐? 十字架가 자지는, 이 고난은 예수
를로 충성하고 또 그것을 권히 하고 十字架의
고난으로 주권을 회복한 다음에 이제 예수
저들에게 과업을 주는것이다. 사랑의 열매는 익히라

비
교

② 최후 만찬을 十字架 직권하기 하느니 송별의 만찬,
여기는 벌써 새 법전의 후하리 내 과업을 하라,
즉 새로 맡게 하라.

③ 여기서는 세번이 계속 해서 네가 나를 사랑
하느냐 묻는다. 이것은 베드로가 세번 예수
를 부인한것과 맞먹는다

→ 1호층 권개는

사상은 아무리 행해 해도 그것으로 흥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활 후에는 매순간 그의 사상을 몸으로 표현하며
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상을 읽는 가능성
이 제시하고 있다.

죽은 뒤로 사랑도 증진될 때 가능하리 시키라
이것이 소질이 결실로 되는 일이다

사실상 이 세상은 법칙 그 자체가 되기 위해 그의
영혼을 버리고 육체를 - 죽는 물에 던져 주는 것
~~은 영혼의 계층으로~~ 그는 다시 감람기 바라는 허
영혼을 키우려고 했다. 사랑이란 선지로 되든
악인으로 되든 아니다 어떤 구체적인 과정
까지 ~~부족한~~ 이를 느끼고 그 과정을 통해
그 사랑이 ~~자주~~ 불려지고 지속된다

이제 예수는 이 못을 떠나 배를 떠나서 도라간
것을 찾아 온것이다. 그것은 이 사랑을 참실련하기
위해 한 과업을 승리 하기 위해서

→ 세트로 ~~기쁨~~ 임장이 보인! ~~사랑은 그의~~ 사랑은 ~~한~~
 —段 존중되었다. 임리가 ~~정확~~ 정확히 보이기
 그것 ~~이~~ 이 한것이 ~~해~~ 해 일바나 아무것도 아닐
 알았을때 비로소 참사랑이 가등했다, 이래
 그가 사랑한다면 그사랑 역시도 줄기 지는것이리
 내게 나온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사랑이란 모든것은 산채로 복먹는다. 죽어
먹는다. 사랑까지나 누르는것은 일단 복을
희므로 비로소 내 사랑이 가득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림 될채 남아있는것이다

→ 宗叔 心^도! 이것도 아부지 신인 이라도 그거.

3

一段 自己 안에서 조물된 후기 때 라야만 창조된 이 ~~창조~~ 된다.

~~사도 바울~~ ~~것~~ ~~은~~ ~~영광~~ ~~이~~ ~~관~~ ~~한~~ ~~것~~ ~~이~~

十字를 받기 받고, 그대 남는게
없다면!

X X

本文.

조물로 영조물: 12월에는 초인을 안았으며 당신이 두
인가를 볼로 감히 묻지도 않느라. 참 이제
내 각심. 내 회심이 다 후회 된것이다. 이제는
복속으로 내 손에 있고 그와 더불어 기다리는 장면!
드라든 陽子 처럼. 간음한 여자, 찾아
온 男使 살려 있듯이, 단지 그와 더불어.

오한와 아들 시분아! Anrede 다. 이 직권 내게 미려
고 묻는것이다. ~~화~~ - ~~화~~ - 의 관제다. 네이들이
아니라 너다. ~~네가~~ ~~남~~ ~~사~~ ~~랑~~ ~~하~~

네가 이사랑도 보다 나눌러 사랑하느냐?
"저도 보라 나눌 이 아녀 저들이 나눌 사랑하느
것은나 네가 나눌 사랑하느냐? 이제는
복속할 예수다. 나눌 사랑 사랑하느것의
것은" 나눌 대상이다

사랑하느냐? $\alpha\gamma\alpha\pi\alpha\sigma$!
베드로: $\phi\iota\lambda\omega$!

2 차베도.

3. 저를 매수한 $\phi\iota\lambda\epsilon\iota\sigma$?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自己~~ ~~의~~ ~~사랑~~ ~~한~~
실히 사랑하느것은 나눌 나눌 나눌 나눌
없는 말이다. ~~물~~ ~~로~~ ~~이~~ ~~관~~ ~~한~~ ~~것~~ ~~이~~ ~~지~~.

내 어진 뜻을 먹이라

내 사랑에 내 취향

분할할 그도 복수를 해달라 도 도 세제 원도를 해 달라고
아무도 그대 내 뜻을 먹이라! 내 과거는.

내 뜻은 먹이라.

여기서 내 뜻이란 10장씩 읽은대로 예수기

나를 찾듯 하는 바로 그 ~~것~~ 그 뜻은.

먹이라! 그 뜻은 '먹인' 것은 불쌍해서

모든 불쌍한 (즉대) 것이 보일 리고 흠은

더운 것은 가리고 흠을 없애고 인도하는 일.

거기 도착도 나리 내 뜻은 ~~먹인~~ (해) 줄

주도 있는 일.

죽은 ~~것~~가 큰 자들에게 내 마음의 부활

베드로의 회개: 그의 사랑은 一段 완전 됐다. 그런
원칙을 완전하게 시작한 사랑은 완전!

다시 그의 관제인 사랑은? 그의 뜻을 한
과정으로 이루는 것! 그것은?

그가 원하던 것은 그가 사랑하는 분부를 꼭 내

일이 있다. 나는 정말 그를 사랑하는가? 그런

대면 내 한 일은 그가 사랑하는 분부를 완전으로 (내)

내 마음대로 내 바치는 일 이다

→ 예수는 2번 도둑같이. 베드로의 회개 완전

베드로: 내가 정말?

→ 3번 이 때까지. 베드로는 근심했다.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하는가? 그가 내 사랑

을 부정 한게 아닌가? 정말 내게 그가

가능 한가?

그렇더라도 나는!

나를 잊는다. 어느 때까지 그럴까! 이따위 죽은 채 해?
밥 셋기니 리(해)니! 참 밥셋기니 리(해)니 리(해)
너무나 쉬운 일이다. 결국 구혼 리(해)니 확실히
이 이러한 생각기는 사랑의 것을 본받았지 한다.
그러나 구혼 리(해) 나는 것까지 지친다.

구혼의 배신 등까지 더구나
Luther는 직업을 Beruf 라는 뜻에 강조
했다. 직업! 그것은 Job 이 아닌 Beruf!
이 것을 사랑 하는 이의 뜻에 리(해)니!
그 Beruf은 사랑하는 이로 리(해)니 이기니.
이 Beruf을 통해서 나는 내 사랑을 드는
그의 사랑을 느낀다

그런 Christen의 Beruf은 신성한 것.
이 Beruf은 그렇게 때문에 부(해)기의
길로 갈라진다. 직업이 복(해)기의
길로 갈라진다. 부(해)기의
그러나 Beruf은 그렇게 리(해)니
그는 사랑하기 때문에 리(해)니
부(해)기의 길로 갈라진다.

한국이 부(해)! 애국심. 새것의 Vision도
있을 때. 본다.

참 그리스도 사람이 그는 그 Beruf의
부(해)기 길로 갈라진다. 그러나 Beruf은
부(해)기이며 리(해)니 사랑의 리(해)니.

사랑하는 리(해)니

사랑의 빛이여 리(해)기니 리(해)니? 리(해)니

이런 좋은 일이 없지 않겠지!

그런데 그게 무슨 일인가?

네가 무슨 생각하냐! 그렇지,